



여우귀에 흐르는 혈관증하는 이경인 후과 전학

이 기 형

1. 외이도(外耳道)의 이물(異物)

소아(小兒)에서 콩 팔 쌀 모래등을 자신이나 다른아이가 귀에 넣는수가 많다. 성인(成人)에서는 귀를 후비다가 성냥풀 솜등을 넣는수가 많다.

이때는 작은것은 귀를 불로 씻어내면 나오는데 뚱갈은 것은 숨기로 부풀어 있으면 알코홀을 적신 솜을 귀속에 넣어서 통의 크기를 작게한 다음에 꺼낸다. 이때 그리세린을 소량 넣으면 미끄러워서 잘 나온다. 곤충(파리 모기 바퀴벌레)이 귀에 들어간 경우는 알코홀을 솜에 적셔 귀에 넣어 곤충이 죽은 다음에 꺼낸다.

2. 이절(耳癱)

뾰루지라고도 하며 마른귀를 앓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첫구멍속의 텔구멍 땀샘등에 세균이 침입하여 생긴다. 수영이나 목욕후에 발병하는 수가 많으며 귀가 붓고 물시 아프다. 예방은 수영이나 목욕후 귀속을 탈지면으로 깨끗히 닦아줘야 한다. 치료는 옥시풀로 귀속

을 깨끗이 닦아주고 항생제연고를 솜에 묻혀 귀속에 넣어준다. 항생제를 내복하며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복용한다.

3. 외상성 고막파열상

(外傷性鼓膜破裂傷)

대개의 경우 미리된 귀이개 이후 시게 성냥 연필등으로 귀구멍을 후비거나 귀지를 제거할 때 고막을 손상하게 된다. 또한 손바닥으로 귀를 얹어 맞았을 경우와 폭풍, 폭음, 다이빙 등으로 고막파열을 일으킨다. 증상은 찌르는 듯한 이통(耳痛)이 있고 귀가 멍멍하며 귀가 울고 때

로는 현기증 구토등을 수반한다. 치료는 이차감염을 방지해야 하며 귀구멍에 피가 엉켜있으면 탈지면을 옥시풀에 묻혀서 띠아주고 깨끗한 솜으로 귀를 막아준다. 항생제를 수일간 복용하면 단순한 고막만의 작은 파열상일 때는 3~4주면 치유되며 영구히 고막천공으로 남는 수도 있다.

고막파열상을 입었을 때는 심하게 코를 푼다면 가 귀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며 고막파열 후 귀에서 놓이 나온다면 말이 전연 안들릴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된다.

〈필자=성모이비인후과의원장·의박〉

자기몸의 진단법

간장병증세의 특징

간장은 체내에서 여려 가지 대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장기이며 그 기능에는 여유가 있고 장애를 받아도 재생 능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때문에 장애를 받아도 간장 전체의 기능이 조절되고 있는 동안은 좀처럼 자작증세는 물론 타각(他覺)증세도 나타나지 않는다.

간장을 침범하는 원

인으로서 간염(肝炎) 바이러스, 각종 세균, 스피로해타등의 감염, 알콜, 영양장애, 중독, 대사이상증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정도 이상의 장애가 간장에 가해지지 않는다면 병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가벼운 장애는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수도 있으나 잠복해서 만성화하여 이미 쌓여진

장애와 합쳐져 간장병임을 알아 차렸을 때는 고치기 힘드는 병상(病像), 예를 들면 간경련증등으로 진전하는 수도 있다. 또 간기능 감사를 비롯한 정밀감사를 하면 쉽사리 발견되는 장애라도 자작증세가 없으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이 경우는 잠재성간장애) 알아차렸을 때는 간경련증등이 되어 있는 수도 있다. 좌우간 장병은 큰 골칫거리다.

〈신상균〉